

# 홀트 소식

아이들은 사랑받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2015  
Autumn

vol.179



**가을 이야기**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고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온 온 네 명의 친구들, 낯선 호기심으로 바라본 한국이지만 특별한 추억으로 가득했던 꼬마 친구들의 행복한 4박 5일을 만나보세요.  
(왼쪽부터) 속카 다윗 · 스톤 비스나 · 소웃 스테이시아 · 티어 짜라 (16p 계속)

사진 | 이정탁 사진작가 후원 · Studio H2

**Contents**

- 03 Holt Letter  
홀트 60년의 헌신과 그 사랑의 정신은 계속됩니다
- 04 홀트 창립 60주년 연중 시리즈  
60년의 숭고한 걸음을 축하합니다!
- 06 입양, 우리 품으로  
반짝, 운명처럼 너는 날아와 안겼지
- 08 사랑으로 크는 아이들  
방긋방긋 너의 웃음을 지켜줄게!
- 10 기획  
우리에게도 꿈이 있어요!  
장애 청소년 워킹업 프로젝트 '나래판'
- 13 Love In World 1  
스물란 홀트 대학생 해외봉사단,  
캄보디아 안전 마을의 밤을 밝히다
- 16 Love In World 2  
행복과 희망으로 물들인 4박 5일  
캄보디아 결연아동 초청연수
- 18 곳곳GoodGood한 엄마  
긴 터널의 중간... 그래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365베이비케어키트와 인연 맺은 강희연 씨
- 20 Holt Interview  
홀트는 살아가는 동안 늘 함께할 평생 친구  
- 송재호 홍보대사
- 24 나눔이웃 나눔기업  
롯데홈쇼핑의 '천사데이'를 아시나요?
- 26 희망 풍경 1  
꿈동이의 여름 캠프 현장, 숲속에서 꿈꾸다
- 28 희망 풍경 2  
처음 만나는 나눔의 기쁨 'HAPPY DONATE'
- 30 Holt News



홀트아동복지회 모바일 홈페이지  
m.holt.or.kr

통권 | 179호 · 기간 **발행일** | 2015년 9월 21일 **발행인** | 말리 홀트 편집인 | 김대열  
**발간위원** | 조철행(자원개발실장), 홍미경(홍보팀장), 박재범(후원팀장), 조선미(국내입양팀장), 이은정(해외사업팀장), 김혜성(아동양육팀장), 이창신(일산복지타운), 신유미(홍보팀) **발행처** | 홀트아동복지회 홍보팀 **디자인** | (주)아이디북 TEL: 02-6271-1900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9 TEL: 02-331-7079 FAX: 02-331-7080  
**이메일** | pr@holt.or.kr **홈페이지** | www.holt.or.kr  
구독 요청 · 좋은 사연 · 좋은 제언을 기다립니다.

**홀트아동복지회**

**이사회**  
말리 홀트 이사장 | 이해경 이사(한국여성재단 이사장) | 임부웅 이사(HICS 부회장) | 정용근 이사((전)동국대학교 교수) | 설태호 이사(주복상사 대표) | 김경희 이사(홀트전국후원회 회장) | 김정오 이사(연세대학교 교수) | 박경수 이사(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 홍현국 감사(공인회계사) | 최수열 감사(공인회계사)

**본부** T.02)331-7000  
**전국미혼모지원센터** T.1588-7501

**지방사무소**  
서울사무소 www.holt.or.kr T.02)331-7000  
강원사무소 www.kwholt.or.kr T.033)251-2344  
경기사무소 www.kgholt.or.kr T.031)217-5999  
경남사무소 www.gnholt.or.kr T.055)243-0009  
광주사무소 www.gjholt.or.kr T.062)227-8877  
대구사무소 www.dgholt.or.kr T.053)756-0183  
부산사무소 www.bsholt.or.kr T.051)465-0224  
인천사무소 www.icholt.or.kr T.032)424-0145  
전북사무소 www.jbholt.or.kr T.063)288-0880

충청사무소 www.ccholt.or.kr T.042)586-1983

**부속기관**  
홀트일산복지타운·일산요양원 T.031)914-6631  
홀트학교 T.031)915-2911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T.031)929-1400  
운봉종합사회복지관 T.051)543-2431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T.031)790-2900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T.053)746-7501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T.051)760-3600  
달서구분리종합사회복지관 T.053)563-1007  
춘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33)251-8014  
마포구건강가정지원센터·마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2)3142-5482  
수성구건강가정지원센터·수성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53)795-4300  
하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T.031)790-2966  
입양가정지원센터 T.02)6938-5550  
홀트심리상담센터 T.053)627-8875  
홀트 광주심리상담센터 T.062)363-8878  
홀트 인천심리상담센터 T.032)424-5839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T.032)424-1391  
전주영아원 T.063)222-1559  
홀트대구어린이집 T.053)746-7504  
마포어린이집 T.02)334-4743  
중동어린이집 T.02)375-6755  
홀트어린이집 T.031)217-0437  
하남은방울어린이집 T.031)790-2970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아름뜰 www.holtarum.or.kr T.02)334-4614  
고운뜰·홀트고운학교 www.goun.or.kr T.031)216-9004  
아침뜰 www.achim.or.kr T.042)585-3004  
마포클로버 www.mapoclover.or.kr T.02)322-3325  
대전클로버 www.djclover.or.kr T.042)583-4006  
대구클로버 www.holtlove.or.kr T.053)654-0181

**해외원조사업**  
캄보디아사무소(홀트드림센터) T.070)8244-7019  
몽골사무소(홀트드림센터) T.070)4006-4116

**홀트 60년의 헌신과  
그 사랑의 정신은 계속됩니다**

따가운 별 아래 모두가 성장을 재촉하던 여름은 지나가고 풍성함이 우리를 찾아오는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홀트는 먼저 긴 여정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암울한 시기에 온몸과 마음을 바쳐 험벗고 굶주림에 지쳐 꿈을 잃어버린 이 땅의 아이들과 장애인들을 헌신적으로 돌보아오신 설립자 해리·버다 홀트 씨 부부의 국경을 초월한 '사랑을 행동으로'의 감동적인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60년을 한결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격려해주시고 후원과 봉사를 해주신 모든 분들의 변함없는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홀트는 그동안 받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사랑에 대해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일로 보답할 것이며, 이는 세대를 이어 계속될 것입니다.

홀트는 창립 60주년이 되는 10월 12일 주간을 '홀트 창립기념 주간'으로 정하고 1) 창립기념 감사 예배 2) 홈 커밍데이 3) 홀트 국제세미나 4) 국내세미나 5) 창립 기념식을 준비하고 있으며, 홀트 60년 보고서, 입양 사례집, '홀트와 나' 수기 공모집 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가정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가정을 찾아주는 일과 미혼모의 자녀 양육을 위한 지원도 계속할 것이며, 장애인 복지와 지역사회 복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각종 치료센터, 건강가정과 다문화지원센터, 보육시설의 운영, 지역사회를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을 통한 종합사회복지기관으로 우리나라 복지사업의 한 축을 충실히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홀트의 전 직원은 설립자 홀트 씨의 숭고한 사랑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 복지 전문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살리고 기독교 신앙을 중심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동안 받은 사랑을 국내뿐만 아니라 최빈국 아이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한 해외 원조사업에도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길이 열리면 북한의 동포들을 돕는 일에도 함께할 것입니다. 사회복지 사업에 있어서는 시대 상황에 따라 사회로부터 요구되는 다양한 복지 사업에 맞추어나가되, 설립자의 국경을 초월한 사랑의 설립 정신은 변함없이 이어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다시 한번 홀트를 사랑해주시고 이끌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두의 가정과 계획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 김대열 드림




# 60년의 송고한 걸음을 축하합니다!

홀트아동복지회가 걸어온 길에는 수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더욱 힘을 낼 수 있었고, 보다 빛나는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중 여러 후원자님과 홍보대사님이 홀트 창립 60주년을 축하하는 특별 메시지를 보내오셨는데, 그 소중한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의 사회복지와 성장에 함께해온 홀트의 창립 6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희망찬 내일을 위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경영**  
중앙일보 고문(전 장관) 이어령

사랑을 행동으로, 그 사랑을 우리 사회 곳곳에 전하고 있는 홀트의 홍보대사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꿈동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항상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사랑받을 때 가장 아름답기에...



**홍보대사**  
가수 선·배우 정혜영 부부

그동안 입양가족 사진과 동영상 공모전을 심사하면서 가족들의 행복 넘치는 마음이 느껴져 저 역시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늘 함께할 것을 다짐하며, 선한 이웃들과 동행해온 홀트의 창립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홍보대사**  
배우 송재호

홀트아동복지회 창립 60주년을 축하합니다. 가정이 필요한 한국 아이들이 미국을 포함, 해외 각지에서 따뜻한 가정을 찾는 데 홀트가 해온 헌신적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홀트는 수많은 사람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홀트의 지속적인 성공을 기원합니다.



**주한미국대사**  
마크 리퍼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어린이라고 하지요. 그런 어린이, 그중에서도 가족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행복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따스한 품을 만들어온 홀트의 발걸음이 자랑스럽습니다. 창립 6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홍보대사**  
배우 김성은

홀로 지내야 하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주고, 홀로 설 수 없는 아이들에게 다리가 되어준 홀트의 지난 60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보다 나은 세상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중외학술복지재단 이사장**  
(JW중외그룹 명예회장) 이종호

입양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추구하고자 헌신해온 홀트의 창립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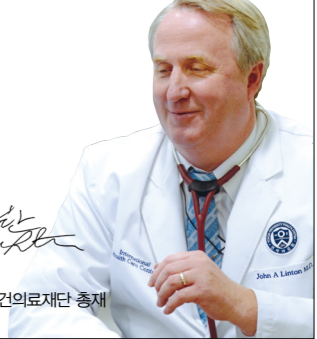
**홍보대사**  
회장 차홍봉

의지할 곳 없는 아이들을 품어온 홀트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창립 60주년을 축하드리며, 홀트의 새로운 도약을 응원하겠습니다.




**홍보대사**  
가수 백지영

지난 60년 동안 부모 잃은 아이들과 장애우들의 희망이 되어준 홀트가 앞으로의 60년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기쁨이 되는 기관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  
인요한


캄보디아와 몽골에서도 아동의 행복과 꿈을 펼쳐주고 있는 홀트의 창립 6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 아동에게도 60년 전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을 전해주세요!



**홍보대사**  
가수·배우 알렉스


**60**  
Congratulation!

아이들의 행복, 소외된 이웃의 꿈을 위한 길의 동반자가 되어온 홀트의 60주년을 정말 축하합니다. 그 걸음에 함께할 수 있어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홍보대사**  
개그맨 윤택

2006년 홀트장애인합창단 '영혼의 소리'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홀트와 함께한 지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그것은 저에게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척 감사하며, 앞으로도 오랜 시간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홀트매일리**  
작곡가 주영훈

홀트아동복지회의 창립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함께해주시는 후원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과 사랑을 실천하며 늘 우리 사회의 따뜻한 등불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홍덕률**  
대구대학교 총장

만남에는 항상 배움이 뒤따릅니다. 저에게는 홀트와의 만남이 그러했습니다.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도 꺾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지난 60년간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홀트를 보면서 매번 힘을 얻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단단한 끈이 되어주시길 기대합니다.



**스타강사**  
김미경 후원자

# 반짝, 운명처럼 너는 날아와 안겼지

현우를 만나러 가는 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웬 아이가 넘어갈 듯 가르르 웃어대는 소리가 청명하게 귓속으로 파고듭니다. 그 소리를 좇아가니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곳이 현우네 집. 100일 때 입양되어 어느덧 4살이 된 현우와 동갑내기 박찬호·권미영 부부의 행복이 샘솟는 일상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래요?



## 온 가족을 팔불출로 만들어버린 기쁨 덩어리

“아빠~ 아빠~ 이리 와봐~ 현우 아빠 보고 싶어~” 같은 공간, 그것도 소파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도 뭐가 그리 보고 싶다는 건지 현우는 실 새 없이 아빠를 찾습니다. 그리고는 아빠 얼굴이 보이면 바로 상시 장전된 애교 발사. 덕분에 엄마 아빠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질 않습니다. “딸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 현우가 그 역할까지 충분히 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애교가 철철 넘치거든요. 저희 가족이나 지인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현우는 예쁨받을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빠도 꼼짝을 못하죠. 평일에는 회사 일로 얼굴을 거의 못 보니까 이렇게 쉬는 날이면 둘이 꼭 붙어 있어요 (웃음).”

엄마 권미영 씨가 봄날의 햇살 같은 미소를 머금고 말합니다. 사실 현우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부부는 ‘이대로 둘이서 사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랜 연애와 결혼, 그리고 자유로운 생활이 만족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입양 얘기가 나온 게 2004년 즈음. 하지만 두 사람이 입양을 원하는 시기가 계속 어긋나 차일피일 미루다 ‘일단 상담부터 받아보자’ 얘기가 나온 게 현우를 만나기 조금 전이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적극 권유하셨어요. 잘 생각했다고, 너무 늦어

지면 입양이 어려워지지 않겠냐고. 그리고 지금 누구보다 현우를 예뻐하는 게 부모님들이세요.”

현우를 만난 건 정말이지 운명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현우를 안은 채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마침 권미영 씨와 눈이 딱 마주쳤는데, 글썽 아이가 방긋 웃더라고요. 그 순간 ‘아, 저 아이는 우리 아이구나. 내가 낳은 아이구나’ 싶었다는 부부. 또 한 가지 운명의 단서는 다름 아닌 이름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미리 아이 이름을 ‘현우’라고 지어주셨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사님이 원래 아이의 이름을 알려주는데 세상에, ‘현우’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진 운명이라는 감동이 북받쳐 올라 시어머니랑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사회복지사님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날부터 현우는 온 가족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그야 말로 금이요 옥이 되었고, 엄마 아빠는 순식간에 팔불출이 되었습니다. 모든 순간, 모든 행동이 너무 신통방통해 자랑을 해대면 한참 육아 선배인 시누이들은 말한답니다.

“다 그래~ 그럴 때야~!”

하지만 엄마 아빠 눈에는 내 아이가 유난히 뛰어난 것처럼 보이니, 이를 어찌나요.

## 앗, 현우에게 여동생이?!

워낙 흥이 많고 감수성 풍부한 현우는 교회에서도 무척 유명합니다. 교향곡과 성가곡이 나오면 어김없이 벌떡 일어나 지휘를 하고, 배운 적도 없는 탭댄스를 취 사람들에게 웃음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엄마에게 꾸중을 들은 후 엄마와의 대화 시간이나, 어린이집 친구들과의 관계, 흔들리는 나무를 보며 ‘엄마, 나무가 춤을 춰, 내 머리도 춤을 춰라고 표현할 줄 아는 걸 보면 분명 현우의 감수성은 남다르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우 엄마가 교육을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갓난쟁이 때부터 아이에게 말을 많이 걸었고, 아이를 혼낼 때도 논리적으로 이유를 설명해주고, 또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해요. 아마 그런 게 아이의 어휘력이나 표현력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어요. 평소 아이를 대하는 스타일은 저희 둘이 좀 반대예요. 엄마는 풀어놓는 편이고 오히려 제가 과보호하는 편인데, 이상하게 저랑 놀 때만 애가 다치더라고요(웃음). 물론 현우 엄마도 화낼 때가 있어요. 번신 직전까지 간 것도 여러 번 봤는걸요? 하하.”

한편 권미영 씨는 박찬호 님의 성품을 ‘칭송합니다. 존경스러울 정도로 긍정적인 면이 틀림없이 현우에게 좋은 기운을 불어넣었을 거라고.

이제 부부는 현우가 없는 날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현우가 오지 않았다면 맛있는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지, 좋은 풍경이 이렇게 아름다운지도 미처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무엇보다 현우 덕분에 가족의 결속이 얼마나 더 단단해졌는지... 한 마디로 현우는 축복 그 자체입니다.

“사실 곧 둘째 입양이 예정돼 있어요. 이번에는 딸. 현우가 질투할까봐 미리 사진을 보여줬더니 ‘예쁘네, 달아’ 이라고 말더라고요. 아직은 조금 질투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은근히 기대도 하는 눈치예요. 저희가 두 아이에게 사랑을 더욱 듬뿍 쏟는다면 그 마음이 전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부부는 현우뿐만 아니라 친구들까지도 입양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평소에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동생만 해도 어린이집에 “친구들이 있는 데서 종종 얘기를 꺼내달라”고 부탁해둔 덕분에 “현우 동생 언제 와?”라며 다들 기대에 차 기다리고 있다고요.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은 그저 씩씩하게 잘 커 자기 몫 다 하며 자유롭게 사는 것.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다면 그보다 기쁜 일은 없겠다고 말합니다. 잠시 이 가족의 10년 후를 그려봅니다. 아마 꼭 닮은 네 사람이 햇살보다 찬란한 사랑을 마구 발산하며 주변을 행복으로 물들이고 있지 않을까요? #H



# 방긋방긋 너의 웃음을 지켜줄게!

뽀얀 피부에 방긋방긋 잘 웃는 서윤이(가명·5개월)는 2015년 4월 22일 서울에서 38주 1일 만에 2.68kg으로 태어났습니다. 산전 진찰에서 장폐색이 의심돼 출생 후 개복수술을 시행했고, 전체 대장 및 하부 소장의 장관 신경절 세포가 관찰되지 않아 선천성 거대결장증(해당 장이 움직이지 않아 절제해야 하는 병)이 진단되었지만, 아이는 그 어린 몸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방긋방긋 미소를 보내줍니다.

서윤이는 선천성 거대결장증과 동반된 단장증후군으로 진단되어 보통사람보다는 짧은 장으로 음식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 질환 때문에 소화 및 흡수가 원활하지 않아 단백질 흡수를 돕는 특수 분유로 수유 중이며, 배변활동은 회장루술(소장 끝 대변주머니 삽입술)로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 조금은 아픈 몸으로 태어난 서윤이와의 만남

태어나자마자 우리회와 인연을 맺게 된 서윤이는 4개월밖에 안 된 여리고 아픈 몸으로 위탁모의 손에 맡겨져 여느 아이들보다 보살펴야 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배변주머니의 소독과 교체에서부터 아픈 의료아동의 양육 방법 교육까지 여간 손이 많이 가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배변주머니보다 서윤이의 사랑스러운 미소가 먼저 눈에 들어왔고, 아이는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고마운 마음에 답례라도 하듯 위탁모를 방긋방긋 웃으며 맞이한다고 합니다. 조금은 아픈 몸으로 태어났지만 하루 빨리 건강해지려고 그 작은 입술로 힘차게 젖병을 빼는 모습을 보면 기특하기까지 합니다.

서윤이가 먹는 분유의 양과 변의 양은 아이의 상태를 짐작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번 꼼꼼히 기록해야 합니다. 그 상태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아이의 건강 상태도 달라지는 것이기에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수유양 증가도 병원과 상의하며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으며, 배변주머니 교체 역시 위생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윤이의 상황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아이의 소장이 1/3밖에 없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소장이식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사의 소견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서윤이의 장래에 대한 걱정이 무척 큰데, 그나마 며칠 전 소아소화기영양과와 소아외과 등 외래진료에서 주치의가 “엄려했던 것과 달리 상태가 양호하다”고 말씀해주셔서 무척 다행입니다. 물론 세심한 보살핌도 큰 도움이 되었겠지만 아이 스스로 잘 이겨내고 잘 자라준 결과인 듯해 장하기만 합니다.

병을 잘 극복해내고 있는 서윤이에게는 따뜻한 보살핌과 더불어 세심한 관찰과 광범위 장관 절제술 등의 추가 수술치료, 일반 분유 가격의 2배인 특수 분유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앞으로 서윤이가 겪어야 할 일은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나은, 더욱 밝고 예쁘게 웃는 서윤이를 곧 만날 수 있기를... 

글 \_ 박혜정 · 아동양육팀



# 우리에게도 꿈이 있어요!

## 장애 청소년 워밍업 프로젝트 '나래핀'

\*나래핀: '날개를 펴서 하늘을 날아라'는 뜻의 순우리말

혹시 장애우들의 취업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얼마나 암울한 현실에 처해 있으며, 많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지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그런 장애우들의 현재와 미래에 조금이라도 꿈과 희망을 더하기 위해 장애 청소년의 당당한 취업을 위한 워밍업 프로젝트 '나래핀'을 실시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이를 통해 어떤 미래를 설계할 수 있었는지, 함께 들여다봅시다.



1. O.T를 마친 후, 밝은 미소와 함께 '파이팅'을 외치는 아이들
2.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되는 자기탐색 및 취업이해 교육 시간
3. 집중하는 아이들에게 열띤 강의 중이신 방응원 센터장

### 장애 청소년 10명 중 4명 "희망 직업 없다"

- (한국대학신문) 2013년 12월 6일 민현희 기자

장애 청소년 10명 중 4명은 희망 직업이 없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진로지도 서비스의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중등단계 특수학교 156곳의 학생 총 5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0.8%(316명)는 "희망 직업이 있다"고 답변 반면 39.2%(204명)는 "희망 직업이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희망 직업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들 중에는 "장애 직업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답한 경우가 10명 중 4명(39.2%) 꼴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나의 흥미와 능력을 잘 알지 못한다"(18.9%), "장애직업을 생각해보는 적이 없다"(17.1%)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이지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직업정보 센터장은 "장애 학생들은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적극적인 의지와 인식이 낮고 자신의 장애 특성에 적합한 직업이 무엇인지와 관련된 정보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선생님! 저는 졸업하면 뭐 해요? 학교 선생님이 저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냥 공장에 가서 일하면 된대요!! 전 공장가기 싫은데... 공장 말고 다른 일은 없어요? 장애인은 취직이 잘 안 되죠?"

- 2012년 홀트 장애우 성장교실 참여 중 취업률 앞둔 고3 장애우 학생 -

### Step by step! 장애 청소년 나래핀 워밍업 1~4단계

매주 수요일 오후 5시가 되면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전체가 시끌벅적해집니다. 23명의 장애 청소년들이 취업준비 교육을 듣기 위해 모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육은 1~4단계로 나누어 진행되며, 1학기에는 1·2단계 교육 과정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1단계는 자기 탐색과 취업이해 교육을 통해 스스로의 적성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요리와 클레이아트 등의 교육으로 흥미를 찾아가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나의 적성에 맞는 진로 특강 및 입시설명회 등을 통해 진학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23명의 장애청소년들은 매 수업마다 흥미 가득한 눈빛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너도 나도 "저요!" 손을 들며 질문하는 등 그 어떤 강의보다 열정이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반기 3~4단계에서는 장애인 작업장 방문, 대학교 견학, 직업현장 체험(요리사, 바리스타 등), 구직기술 교육(입사지원서 작성, 모의면접, 이미지 메이킹) 등 보다 실질적이고 심층적인 취업준비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명	활동 내용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 탐색 및 취업이해 교육 (직업적성검사, 개별상담 등)</li> <li>• 흥미찾기 교육 (요리교실, 클레이아트교실, 원예교실 등)</li> </ul>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 특강</li> <li>• 선배와의 특강 (근로장애인 또는 진학선배 특강)</li> <li>• 입시설명회</li> </ul>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작업장 방문</li> <li>• 대학교 방문</li> </ul>
4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현장 체험 (실제 실습이 가능한 직업현장과 연계해 직업 체험)</li> <li>• 실전 취업 / 실무 교육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모의면접, 이미지 메이킹)</li> </ul>

1. 구직요구검사지 작성에 집중하는 아이들
- 2, 3. 모두가 함께 즐거운 '흥미찾기' 요리교실 시간





1. 장애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클레이아트 시계  
 2. 너도나도 시계 만드는 데 열중하는 아이들  
 3. 가장 먼저 가족정원 만들기를 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한 컷



###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나래핀 흥미찾기 수업으로 요리교실이 진행된 날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늦은 저녁 마음 한 켠이 따뜻해지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나래핀 수업을 듣는 김수민(가명) 학생 부모님의 연락이었는데, 당일 나래핀 수업에 참여하고 집에서 엄마와 저녁식사를 하던 김수민 학생이 “엄마! 오늘 얼굴이 피곤해 보여요~ 오늘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요리 수업을 했는데 오늘은 엄마 대신 제가 설거지를 해볼래요~”라며 스스로 앞치마를 댄다는 것입니다.

엄마를 도와 처음으로 해보는 설거지라 비록 서툰 솜씨였지만 그 모습을 본 김수민 학생의 어머니는 아들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며,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덕분에 가족이 정말 행복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담당자로서 마음이 몽클해졌고, 나래핀 수업에 더욱 애착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연은 지금까지도 훈훈한 미담으로 전해지고 있을 만큼 여러 사람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장애 청소년들의 해맑은 미소와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우리 장애 청소년들은 직접 장애인 작업장 방문, 진학을 위한 대학 방문, 직업 현장체험 등을 경험해보면서 현장 경험을 쌓는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23명의 멋진 장애 청소년들의 희망찬 미래를 다함께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홀트

글\_ 이진희 ·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 스롤란 홀트 대학생 해외봉사단, 캄보디아 안찬 마을의 밤을 밝히다

홀트 장학생을 중심으로 시작된 스롤란 홀트 대학생 봉사단이 7월 15일부터 25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 시 트라피앙 안찬에서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방과 후 수업 외에도 태양광 가로등 7기 설치와 저소득 32가정을 방문, 전기 수리를 훌륭히 해낸 우리회의 자랑스러운 봉사단. 안찬 마을의 밤하늘에 빛을 밝힌 이야기를 전합니다.



스롤란 홀트 대학생 해외봉사단은 지난해부터 행정자치부의 후원을 받아 선발 대상을 전국 대학생으로 확대했으며, 올해는 기술봉사단원을 선발, 처음으로 전기기술 봉사단을 캄보디아 홀트드림센터에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캄보디아에서는 주민들 대상의 공청회를 열어 어떤 기술봉사활동이 필요한지 의견을 모았고, 태양광 가로등 설치 개수와 장소까지 주민들이 직접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프놈펜시 포센차이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관심을 보여 봉사단 전기물품의 통관과 가로등의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해 도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연초부터 전기봉사팀을 인솔할 전문가를 섭외하고 물품을 구입하느라 동분서주했습니다. 10일간의 작업을 위해 장장 6개월을 준비한 셈입니다.



### 한국폴리텍대학 전기과와 함께한 가로등 설치

트라피앙 안찬 마을은 밤이면 바깥 활동이 불편한 지역입니다. 시내 공장에서 퇴근하고 오토바이를 이용해 돌아오는 주민이 많은데, 그동안은 길이 잘 안 보여서 무척 위험했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의 전기과 공장은 교수님과 스콜란 홀트 전기팀원 4명은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태양광 가로등부터 설치했습니다. 홀트드림센터 앞에 하나, 그리고 6개 마을에 한 개씩을 세웠습니다. 가로등 기둥은 한국에서 보내준 설계를 보고 마을에서 미리 세워놓았고, 거기에 한국에서 가져간 부품을 조립하는 방식이었는데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기둥이 설계도보다 1cm 두꺼워 몇몇 부품은 현지에서 다시 사야 했고, 3.5m 사다리 꼭대기에 올라가 강렬한 햇볕과 마주하는 일은 무척 고되었습니다. 양지바른 곳에 있어야 태양 에너지를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위치 선정이 잘된 곳일수록 햇볕이 강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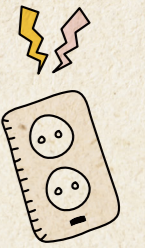
가로등 설치 속도는 날마다 빨라져 3일 만에 7개를 모두 세웠습니다. 주민 이동이 잦은 마을 큰 길에 나란히 선 가로등 4개가 밤거리를 비추는 모습은 눈부셨습니다. 설치 첫날 밤부터 가

로등 아래에 파라솔을 펼쳐놓고 장사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배터리 전압은 한국에서 설치한 가로등보다 높았습니다. 일조량이 좋아서 배터리 충전이 잘 되고 하루 충전으로 오후 7시부터 11시 30분까지 켤 수 있습니다. 더욱이 3년에 한 번씩 배터리를 갈아주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을 이장과 홀트드림센터 직원들에게 가로등 관리 방법을 알려줘 봉사단이 떠난 후에도 마을에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이제 저녁 식사를 방에서 할 수 있게 됐어요!”

다음은 저소득 32가구를 방문해 낡은 전기 배선을 정비하고 기존 등을 LED 등으로 교체하는 순서. 집마다 전기는 들어오는데 전기설비 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공장은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예전 필리핀 전기 봉사활동 때보다 트라피앙 안찬 마을 수준이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두꺼비집이 없는 집이 있는가 하면 철사 두 가닥을 콘센트에 꽂아 쓰는 집도 허다했습니다. 선들은 대개 오래되어 낡았고, 불꽃이 튀는데다 감전되는 일도 잦았습니다.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 마을의 집들은 천장이 높고 얇은 양철지붕으로 덮여 있었으며, 나무 기둥 몇 개가 천장을 떠받치고 있는데 기둥에 전기 콘센트가 한두 개씩 붙어 있고 거미줄이 감긴 전선가닥 여러 개가 늘어져 있었습니다. 천장이 높아서 사다리가 필요한 작업이 많았고 집안은 바깥보다 뜨거웠습니다. 전기팀은 교수님의 지도 아래 2인 1조로 움직였는데 한 집당 보통 한 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한 번 손을 대면 마칠 때까지 손을 뗄 수가 없어서 땀에 젖은 전기팀원의 셔츠는 마를 새가 없었습니다.

방문하는 집마다 쉬운 집이 없었습니다. 어떤 집은 고철 곳이 너무 많아서 오후 3시에 시작한 작업이 밤 8시가 넘어서야 끝났고, 마침내 전깃불이 들어오자 밖에서 기다리던 식구들과 동네 주민들이 박수치며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부엌에 등이 생겼다고 안주인이 제일 좋아했습니다. 어떤 집주인은 천장이 없는 화장실에 등을 달아달라고 고집을 부려서 결국 화장실 벽에 가림막 하나를 만들어 등을 달아주고서야 그 집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또 한 집은 이웃집 불빛이 스미는 현관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계획에는 없던 집이었지만 보다 못한 교수님께서 방안에 등을 달아주셨고, 그 집 사람들은 그날 저녁부터 식사를 방안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전기팀은 저녁을 거르면서까지 더 많은 집을 수리하려고 욕심을 냈지만 체류 기간이 제한되어 계획한 가정밖에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 했음에도 오는 날까지 아쉬웠습니다.

LED 전구는 기존 전구보다 더 밝습니다. 전력 소모량도 1/3 수준밖에 안 되고 5만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월 소득이 10만 원인 가구가 다달이 1만 원씩 전기세를 냈는데, 앞으로는 전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트라피앙 안찬 마을에는 총 1,000여 가구가 삽니다. 1가구당 전기수리 비용이 약 4만 원 정도. 우리회가 지속적으로 기술봉사활동을 펼쳐 트라피앙 안찬 마을의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도움을 주신 행정자치부와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에 감사를 드리며, 스콜란 홀트 대학생 해외봉사단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클\_이필영 · 해외사업팀



# 행복과 희망으로 물들인 4박 5일

## 캄보디아 결연아동 초청연수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고 캄보디아에서 온 네 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시크한 개구쟁이 스룬 비스나, 웃음이 예쁜 매력쟁이 소웃 스레이미아, 똑똑이 티어 짬라, 작지만 다부진 속카 다빗. 모든 것이 처음이어서 행복한 꼬마 친구들과의 4박 5일을 함께 돌아보려고 합니다.

### 1일 차

5시간의 여정 끝에 한국에 도착한 아이들과 선생님 첫 서울 구경으로 간 곳은 바로 서울 관광의 필수 코스 경복궁이었습니다. 왕궁이 5개나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더니, 광화문 앞 수문장 교대식을 보고는 잔뜩 겁을 먹어 얼어붙던 아이들. 광장을 지나 도착한 청계천에서는 물고기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왜 한국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지 않고 구경만 하냐”며 의아해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캄보디아 아이들은 웅덩이의 물고기만 보면 잡아서 구워 먹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숭례문과 남대문시장을 둘러보고, 시장에서 생선구이와 함께 저녁을 먹는 것으로 설레던 첫날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 2일 차

아이들이 캄보디아에서부터 가장 기대하던 곳은 어디일까요? 네~! 바로 놀이공원입니다. 눈에 띄는 기구마다 신기하다며 환호하더니, 특히 바이킹에서 흥분이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하지만 먼저 후룸라이드를 한 번 타고는 엄청 무서웠던지 바이킹 타지는 소리까지 쭉~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공포체험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더니, 막상 누구 하나 먼저 들어갈 생각을 안 했는데요. 선생님의 인솔로 겨우 발을 내딛고는 체험이 끝날 때까지 꼭 잡은 손을 놓지 않던 귀여운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30시간도 더 놀 수 있다며 큰소리치던 놀이공원을 뒤로한 채 돌아오는 지하실 안. 아이들은 모~두 똘아떨어져버렸다는 후문!



### 3일 차

셋째 날에는 아쿠아리움으로 갔습니다. 평소 볼 수 없던 각종 물고기와 커다란 고래가 머리 위를 헤엄쳐 지나자 아이들의 눈이 번쩍! 귀여운 펭귄 떼들의 행진과 멋진 수영, 바다 코끼리의 박수치기와 잊몸 일으키기를 볼 때는 거의 넋을 잃은 모습이었죠. 바다동물들과의 만남 뒤에는 미니 동물원에도 들렀는데요. 양, 재규어, 원숭이, 앵무새를 보며 무척 즐거워했습니다. 특히 소웃 스레이미아는 이 구아나가 아주 마음에 들었는지 이후 한국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으로 뱀을 꼭기도 했습니다. 오후에는 한국의 방과 후 교실 수업에 참석해 한국 아이들과 함께 게임도 하고, 햄버거도 만들며 교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 4일 차

넷째 날에는 아이들이 캄보디아 홀트드림센터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시는 결연 후원자님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쁜 시간을 내주신 것으로도 모자라 꼬마 손님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한아름 안겨줘 아이들이 정말 기뻐했죠. 덕분에 아이들이 돌아가면 ‘후원자님을 생각하며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는 약속도 했다는 사실! 이어서 직업 체험 파크에도 다녀왔는데요. 스룬 비스나와 티어 짬라는 의사가 꿈인 아이들답게 하얀 가운을 입고 응급 환자를 치료하는 체험을 했고, 속카 다빗은 경찰특공대 체험을 한 그날, 경찰이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5일 차

캄보디아로 돌아가는 마지막 날에는 스톨란 홀트 대학생 해외봉사단 해단식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홀트드림센터에서 열흘간 봉사활동을 진행한 단원들을 한국에서 다시 만나는 것은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큰 기쁨이었죠. 해단식에서 4박 5일간의 일정을 마치는 소감을 발표한 티어 짬라는 “재미있고 신기한 곳도 다녀오고, 맛있는 한국 음식도 먹고, 후원자님들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다”며, “캄보디아에 돌아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 가족들과 캄보디아를 위해 꼭 훌륭한 캄보디아인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돌아간 아이들은 가는 곳마다 예뻐해주고, 반겨주는 이들이 있어 정말 행복했습니다. 생소한 경험이 많았던 만큼 다양한 추억들이 아이들에게 남겨지겠죠. 하지만 무엇보다 잊지 못할 것은 바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받았던 사랑이 아닐까요? 그 기억이 아이들의 평생을 지탱해주어, 아이들의 약속처럼 가족과 나라를 위해 훌륭한 캄보디아인으로 성장하는 에너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 긴 터널의 중간... 그래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 365베이비케어키트와 인연 맺은 강희연 씨

선택은 늘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 전체를 좌우할 만한 것이라면 더더욱. 강희연(가명) 씨는 20대 중반에 내린 단호한 결정 탓에 꽤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말합니다. 자신은 두 아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여러 도움의 손길을 받게 된 것을 보면 행운의 여신이 그들을 비껴가지는 않은 듯하다고. 주어진 삶을 긍정적으로 헤쳐나가는 미소가 예쁜 그녀를 만나러 가보았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꾸고, 지금은 따로 들어와서 살고 있으니 연락할 길이 없었던 거죠.”

조심스레, 양육비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았는데 거기에 대한 희연 씨의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당장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끝난 인연을 잇는 것보다는 혼자 힘으로 일어서고 미련을 두지 않는 게 맞는 것이라고.

“이대로 충분해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얘기하지만 아껴 쓰면 그렇게 부족하지도 않아요. 또, 이번에 홀트아동복지회와 인연이 닿아 365베이비케어키트도 지원받게 됐잖아요. 아침粥 선생님이 추천해주셔서 신청해본 건데, 사실 이렇게 덜컥 선정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아기 분유와 기저귀 등이 지급된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희에게 이처럼 좋은 일이 또 있겠어요?”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또 아이들이 생각보다 정말 잘 자라주고 있어서 감사할 따름이라며 눈시울을 붉히는 희연 씨. 특히 외출 시 남매 둘이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노라면 가슴이 벅차오를 만큼 행복이 밀려온다고 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희연 씨는 다짐합니다. 비록 엄마 혼자 몸이지만, 늘 지금처럼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지 않게 해줄 것이라고. 그리 하기 위해 꿈을 찾고 도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얼마 전 조무사 시험에 떨어졌는데 아이들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정말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계속 고민 중이에요. 전 아이들과 제 꿈을 함께 찾아가고 싶어요. 그게 제 꿈이에요.”

아이를 안고 환히 웃는 그녀가 무척이나 아름답습니다. 눈부신 햇살보다 그녀가 더욱 빛날 수 있는 건 사랑에 빠진 여자, 그중에서도 모성애로 충만한 여자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자"고 옷깃을 잡아끌 때에는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집안이 발각 뒤집혔죠. 천금 같은 딸이 미혼의 몸으로 임신한 한 걸로도 모자라 아이를 낳는다는데 어떤 부모님의 가슴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한동안 제게 말 한 마디 건네지 않으셨죠.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부모님께서 제 뜻을 존중해주겠다고 하셨어요. 덕분에 그 후로는 병원에 꼬박꼬박 검진을 받으러 가게 됐죠.”

하지만 그녀의 터널은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나 봅니다. 규현이가 예쁜 짓을 시작해 온 집안에 웃음을 안겨주고, 둘째를 임신한 채로 결혼 날짜까지 잡아 행복에 빠져 있을 즈음, 그녀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바로 파혼.

“이번에 누구보다 큰 충격을 받은 건 저였어요. 임신 5개월째에 파혼이라니...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지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그냥 인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제가 행복했을까요? 글썽... 아닐 것 같아요.”

### 아이들과 함께 꿈을 찾아가는 게 나의 꿈

하지만 이번에는 경우가 좀 달랐습니다. 워낙 큰일이었기에 직계 가족 외에는 임신 사실을 알릴 수 없었고, 결국 그녀는 규현이를 부모님께 맡겨놓은 채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일종의 도피를 하기에 이릅니다.

“이는 사람이 전혀 없는 곳으로 가서 숨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 알게 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아침粥은 제게 행운이었죠. 2014년 7월에 입소해 둘째 규은이를 낳았는데, 아마 이곳이 아니었다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연고도 없는 데서 외롭지 않냐고 묻는데 전혀요. 아이들도 있고, 아침粥 선생님들도 있는걸요. 제 둘도 없는 친구들이에요(웃음).”

그러나 가족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우선 부모님이 둘째에게 마음을 내주지 않으셨고, 형부에게도 얼마 전이야 둘째의 출생 사실을 밝혔으며, 희연 씨부터도 기금적이면 동네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집에서만 생활하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길을 걷다 또래 아이들이 제 엄마 아빠와 함께 있는 걸 볼 때마다 찢어질 듯 아팠던 그 마음을 어찌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저희 첫째는 뭔가를 아는지 아빠 얘기는 일절 안 해요. 어린이집에서 소꿉놀이를 하면 아빠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그제 저를 배려해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는 아빠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아이 아빠가 본가에 찾아온 적이 있는데 어머니가 쫓아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 두 아이의 임신, 그리고 파혼

생각보다 앓던 얼굴, 그리고 얼굴 한가득 머금은 미소에 잠시 당황을 해버렸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촬영이 부담스럽다며 가능한 한 노출을 삼가줬으면 좋겠다고 전해온 터였던 그녀가 더없이 밝고 씩씩하며 예의 바른 태도로 다가오니 조금은 어리둥절했던 게 사실.

“아무래도 아이들이 있으니... 첫째는 어린이집 다니는 나이가 되었으니 더 조심스럽더라고요. 저도 여러 모로 부담스럽기도 하고... 출산 후에 살도 많이 쪼그려요. 호호.”

첫째 규현이(가명·6살)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아침粥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임신이란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던 시절, 희연 씨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야 했고, 그 와중에도 임신을 포기한다는 생각은 단 한번도 해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임신 8개월이 될 때까지도 가족에게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던 그녀. 하지만 딸의 체중이 급격히 늘어난 줄 안 어머니가 “살 빠리 병원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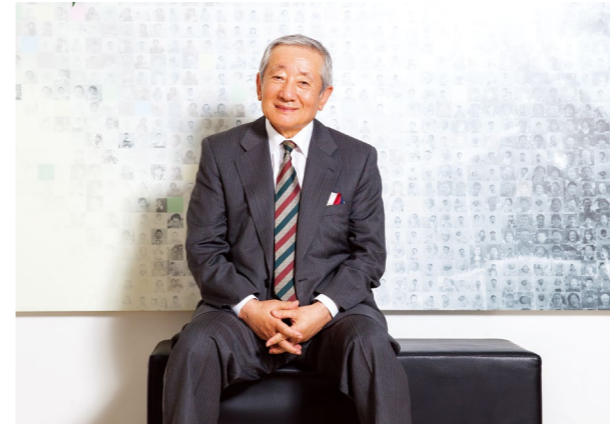
‘꽃GoodGood한 엄마’ 캠페인 후원

1899-0923 / 02-331-7082  
www.holt.or.kr

‘꽃GoodGood한 엄마’는 미혼양육 모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꽃GoodGood(좋은)한 엄마로 살아가길 희망하고 응원하는 캠페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미혼양육모들이 더욱 꽃GoodGood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세요!

# 홀트는 살아가는 동안 늘 함께할 평생 친구

## 송재호 홍보대사



송재호 홍보대사와 홀트의 인연을 이야기하려면 어느덧 8년 이상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홀트 홍보대사들의 적극적인 활동이야 워낙 유명하지만, 그중에서도 그는 단연 독보적이라 할 만큼 많은 시간을 홀트와 함께해왔습니다. 나눔이라는 존재를 누구보다 진지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대할 줄 아는 사람, 처음 만난 타인에게 마치 아이들을 바라볼 때와도 같은 인자한 미소로 먼저 악수를 청할 줄 아는 사람, 한 마디로 그는 정말 '멋진 사람이자 어른'이었습니다.

전혀요. 저희 집에서 홀트까지 60km 정도가 되는데 사실 오가는 조금 힘들어요. 하지만 다른 건 전혀 힘들 게 없어요. 홀트가 하는 일을 보세요, 얼마나 멋진지. 어려운 사람, 그중에서도 부모와 인연이 끊긴 아이들을 돕는 일이잖아요. 저는 홍보대사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는 다짐을 했었어요. 그래서 홀트가 부르면 웬만한 일은 다 제쳐놓고 달려가요. 앞으로도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거고요.

**Q. 홀트에서 활동을 시작하신 게 2007년 4월 16일부터니까 어느덧 8년이 훌쩍 넘었어요. 나눔 활동을 펼치는 많은 기관 중 특히 우리회에 관심을 가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에 공개 입양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사실 그 전에는 저도 입양에 대해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일을 계기로 선입견을 버릴 수 있었고, 다른 신도들도 상당한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됐죠. 그러던 중 마침 홀트아동복지회에서 홍보대사 제의가 온 거예요.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Q. '홍보대사'라고 이름만 빌려주는 경우도 많은데 선생님은 활동을 정말 활발히 하고 계세요. 각종 후원행사에 한 달에 몇 번씩이나 참석하시기도 하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진심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일 것 같아요.**

**Q. 오늘도 '아름다운 청소년 선발 시상식' 행사에 참석하셨는데 잠깐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올해 9회를 맞는 행사로, 한 기업의 후원으로 청소년들에게 '꿈 지원금'을 전달해왔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후원이 중단되는 바람에 청소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게 됐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좋은 일에 사용되는 걸... 사정만 허락한다면 제 주머니에 있는 돈이라도 모두 내어놓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개인 후원을 유도할 기회를 계속 엿보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웃음).

**Q. 정말 적극적이시네요(웃음). 오늘 행사에서 선생님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전 심사위원 자격으로 참석을 해요. 예를 들어 꿈이 역사학자인 아이가 있으면 역사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아주기도 하죠. 물론 심사 기준은 있어요. 홀트에서 1년에 한 번 그 기준이 담긴 책자를 보내주는데 어이쿠, 그게 엄청 두꺼워서 시험 공부하듯 읽게 돼요. 날 아주 머리 아프게 해. 허허.

**Q. 입양가족 사진·동영상 심사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계신데 주로 어떤 점을 눈여겨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행복한 가정생활이 오롯이 드러나는 작품에 더 높은 점수를 주게 되는 것 같아요. 홀트아동복지회 복도에 걸린 수상작들을 좀 보세요. 아이들의 순수하고 해맑은 얼굴과 그 아이들을 통해 더 큰 행복을 얻게 된 가족들의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전 UCC 심사에 참여하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에서 큰 감명을 받습니다.

**Q. 우리회와 오랜 시간 함께하시면서 우리나라의 나눔 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 개인적**

**으로나 사회적으로 느끼시는 아쉬움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제도적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만약 제가 국회의원이라면 법을 하나 만들고 싶을 만큼(웃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법 제정도 그렇고 입양 시스템도 다시 한번 바라봐줬으면 좋겠어요. 국내에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 통로를 조금 더 열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좀 더 오픈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어떤 교회는 입양 사실을 아예 공개 했더니 다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등 오히려 인식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덕분에 입양가족도 증가하게 됐고, 한 달에 한 번은 입양가족 모임도 가

지는 등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다고.

**Q. 요즘은 공개입양을 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긴 하잖아요. 입양을 통해 아이들이 밝게 자라나고, 또 훌륭한 어른이 되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 더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럼요. 공개입양을 하면 오히려 아이들도 개방적으로 잘 커나갈 확률이 높아요. 좋은 예가 차인표·신애라 부부잖아요. 공개하고 아이를 기르는 것과 숨기고 기르는 것은 천지차이예요. 아이들을 사랑으로 충만하게 기르면 아무 문제 없어요. 입양은 생명 하나하나를 구원한다는 의미도 있는데다, 양육을 통한 수많은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해주기에 숭고한 거예요. 아이 키우는 재미가 얼마나 큰데요.

**Q.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우리회뿐만 아니라 입양과 미혼모 문제 등에 굉장히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듯해요. 우리회란 선생님께 어떤 존재인가요?**

제게 많은 깨달음을 준 곳이지요. 처음 시작된 게 한국전쟁 때인데, 당시 고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힘든 시기를 거쳐 벌써 창립 60주년이 됐다니... 그래서 전 말리 홀트 이사장님과 조병국 원장님을 생각하면 자연히 머리가 숙여져요. '홀트 일은 본업을 제쳐놓고라도 무조건 하자' '홀트에서 날 원할 때까지는 무조건 일하자' '살아가는 동안은 내가 함께해야 할 곳이다' 다짐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죠.

**Q. '나도 좋은 일 한번 해볼까' 생각은 하지만 막상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마음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줄 것을 격려하는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마음은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기가 힘들다면 우선 후원 등 내 형편이 허락하는 일부부터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심은 힘들지만 막상 행동으로 옮기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는 무척 많거든요. 그러다 나에게 입양이라는 일이 현실로 다가오면 그때 다시 찬찬히 생각해보고 결정하면 더욱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좋은 에너지가 주변에까지 자연스럽게 퍼진다면 정말 좋은 일이고요. 사실 제가 방송 프로그램 <따뜻갑 과 외하기>에서 진지희 양에게 SNS를 배워 꼭 빠져 있는데, 그런 것



도 나눔을 전파하는 좋은 매개가 되더라고요. 오늘 인터뷰하는 것도 올릴 텐데, 예전 홀트 인천복지센터 개관식에 참석한 걸 올렸더니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 하나같이 긍정적인 것들이어서 참 기분이 좋았죠. 이렇듯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방법은 무척 다양해요. 그러니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세요. 아무리 사소한 것들이라도 그 의미는 생각보다 훨씬 크니까요. **홀트**



## 롯데홈쇼핑의 ‘천사데이’를 아시나요?



### LOTTE HomeShopping 롯데홈쇼핑

운동회의 꽃이었던 ‘릴레이(계주)’를 기억하시나요? 바통을 이어 받아 달릴 때의 짜릿했던 순간들. 지난 봄, 그 어떤 릴레이보다도 활기차고 감격스러웠던 릴레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롯데홈쇼핑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매월 셋째 주 토요일을 ‘천사데이’로 지정, 당일 주문 건당 1,004원을 적립해 후원하는 캠페인이 그것입니다.

2014년 12월 롯데홈쇼핑 직원들은 어느 투표를 위해 고민에 빠졌었다고 합니다. 임직원, 고객, 소외계층 등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눔 릴레이에 참여할 대상 단체를 선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업에서는 자신들이 누구와 함께 사회공헌을 진행하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캠페인은 일방적으로 기업 차원에서 기관을 선정하고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임직원들이 후원하고 싶은 단체를 직접 제안하고 투표를 통해 선정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직원들의 참여로 우리회가 선정되었고, 실무진과의 협의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한부모를 돕는 ‘갯갯goodgood한 엄마’ 캠페인에 후원사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홈쇼핑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여성들, 엄마들이 도움과 응원이 필요한 또 다른 엄마들에게 응원과 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 우리의 재능이 사회를 조금이나마 변화시킬 수 있다면...

미혼한부모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캠페인을 함께 만들어온 롯데홈쇼핑 사회공헌 담당자는 말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갯갯하고 긍정적으로 생활하며, 내일을 꿈꾸는 엄마, 꿈꾸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나간 과거를



타하기보다는 앞으로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가정이 많아지기를 우리 임직원 모두가 응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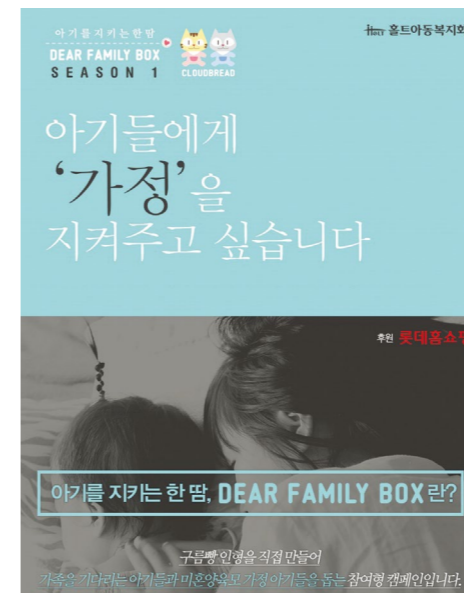
뿐만 아닙니다. 더 많은 이들의 참여를 기대하며 우리회의 미혼한부모 멘토이자 후원자로 활동하고 있는 스타강사 김미경 후원자도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이 캠페인을 응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첫 ‘천사데이’. 나들이하기에 딱 좋았던 완연한 봄날이었던 까닭에 방송을 통한 참여가 적지는 않을까 걱정했지만, 취소와 반품을 제외하고도 7만여 건의 주문을 통해 무려 7,000여 만 원이 미혼한부모들을 위한 기금으로 모였습니다. 좋은 물품의 구매와 더불어 기부도 할 수 있다는 기분 좋은 마음이 소비자들을 움직였기 때문이겠죠?

나눔 릴레이로 시작된 인연은 참여형 기부캠페인 ‘디어패밀리박스’까지 이어졌습니다. 가족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미혼한부모 가정 아이들에게 직접 만든 인형도 전달하고 수익금도 기부되는 이 캠페인에 우리회가 ‘대중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롯데홈쇼핑이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나눔 릴레이를 통해 함께한 미혼 양육모 지원의 연계선상에 있고, 홈쇼핑이라는 특성을 살려 기부할 수 있는 캠페인이었기 때문”이라며, “재능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고 이를 통해 사회의 한 부분이 조금이나마 변해갈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사회공헌이 아니겠는가”라고 담당자는 말했습니다.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모습으로 ‘동행하는 사회공헌’을 실천하고 있는 롯데홈쇼핑과 우리회의 동행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발걸음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LOT

글 \_ 김유진 · 후원개발팀



# 꿈동이의 여름 캠프 현장, 숲속에서 꿈꾸다

폭염으로 전국이 뜨거웠던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2박 3일간의 캠프에 참여하기 위해 전국의 꿈동이 300명이 강원도 횡성 숲체원에서 만났습니다. 1년 만에 만난 친구들에게 '잘 지냈니?'라고 수줍게 인사를 건네는 아이들, 부쩍 키가 자라고 성숙해진 모습을 보니 1년이라는 시간이 꽤 길었나 봅니다. 천진난만한 어린 꿈동이부터 사춘기로 고민이 많은 중·고등학생 꿈동이까지, 꿈에 용기를 보낼 수 있었던 시간을 함께 들여다볼까요?



## 숲속에서의 소중한 만남, 그리고 추억

올해로 7회를 맞는 꿈동이캠프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레크리에이션과 놀이로 스트레스를 풀어 몸이 즐겁고, 협동심을 기르는 단체 프로그램과 소망전등, 다짐패, 버킷 리스트 만들기를 체험하며 마음이 성장하는 경험도 했습니다. '자연속의 힐링'이 이번 캠프의 주제였던 만큼 숲속에서 자연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숲해설가 선생님이 친절한 안내를 맡아주셨습니다. 평소 모르고 지나쳤던 풀, 꽃, 나무의 설명을 들으니 자연도 사람처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무를 깎아 만든 새총이 멋진 놀이감이 되었고, 기다



란 풀잎은 풀피리로 변신시켜 자연에서 놀기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캠프 일정 동안 가장 많이 만난 동물인 다람쥐였는데요, 꿈동이가 반가운 듯 주위를 내내 맴돌았습니다. 꿈동이들은 밤이 되면 밝게 뜬 달을 바라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가 쏟아지는 별을 이불삼아 잠들었습니다.

## 꿈동이의 소망, 이루어질까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은 어땠나요? 아마 다들 꿈 많은 소년·소녀였을 것입니다. 저희는 꿈을 꾸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꿈동이의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대만에 가면 소원을 적은 풍등을 띄우는 축제가 있는데, 꿈동이도 이번 캠프에서 소망전등을 만들고 그 위에 소원을 적어내려 갔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아빠가 아프지 않기를 바라요' '엄마가 올해는 돌아왔으면...' '제 꿈은 의사예요. 아픈 사람을 고쳐주어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등의 바람들로 소망전등은 불을 밝혔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마음씨 예쁜 꿈동이가 모인 캠프는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1. 소망전등을 만든 꿈동이
2. 선 홍보대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꿈동이
3. 얼굴에 갖가지 문양들을 새겨주는 페이스 페인팅 부스
4. 협동심을 기르는 목재집 쌓기

## 한여름 밤의 음악회에서 생겨난 꿈

멋진 남성 성악가들이 무대에 섰습니다. 숲속 음악회가 시작되자 웅장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꿈동이가 지휘자가 된 것처럼 리듬에 맞춰 몸을 움직여보기도 합니다. 음악 시간에 친구들과 입맞춰 불렀던 가곡이 아름다운 화음의 옷을 입고 성악가의 목소리로 전해집니다. 성악 발성법을 배우고, 성악가들과 함께 노래하는 이 순간, 꿈동이는 음악가가 되어 무대에 선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재능교육후원으로 피아노를 배우고 있는 강다진(가명,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소속) 꿈동이는 이번 음악회를 경험하며, 예술가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자신이 가장 잘하는 피아노의 재능을 살려 피아니스트가 되어야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어 아이들에게 꿈꿀 수 있는 용기를 음악으로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 꿈동이는 사랑받고 있어요

꿈동이캠프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캠프 2일 차, 깜짝 손님들이 방문했습니다. 우리회 김대열 회장, 탐리더스 김윤정 회장(씨스테인웨그로 대표), 한효구 위원(한스종합건설 대표)이 바로 그 주인공. 선 홍보대사 역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꿈동이가 보고 싶어 한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선·정혜영 부부가 후원하는 아동은 꿈동이 100명으로, 재능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꿈동이 모두가 내 아이와 같다는 마음으로, 선 홍보대사는 꿈동이 한 명 한 명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련된 시간, 바로 꿈동이의 즉석 질문을 받아서 답하는 소통의 시간이었는데, 즉석 랩을 보고 싶다는 꿈동이의 요청에 흔쾌히 즉석 공연을 펼치기도 해 캠프장은 이내 신나는 축제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2박 3일의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꿈동이는 '내년에는 또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까' 벌써부터 궁금해하는 표정입니다. 꿈동이의 소중한 꿈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밝은 미소가 지속되기를 바라며 함께 소망전등에 불을 밝혀봅니다.

꿈과 희망지원 300명의 꿈동이 재능교육후원사업은 홍보대사 선·정혜영 부부, 백주년기념교회, 탐리더스, 유학네트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HWT

글 \_ 권혜란 · 후원관리팀



## 처음 만나는 나눔의 기쁨 'HAPPY DONATE'



하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난해 관내 고등학교에서 '생명의 기쁨! 경기도 가족사랑 프로젝트'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번 해에도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지난 7월부터 하남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족사랑 및 생명존중,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생명의 기쁨! 경기도 가족사랑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참여 학생들이 얻은 것은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 신생아 용품 제작하며 가족사랑·생명존중의 의미 깨닫는 시간

'생명의 기쁨! 경기도 가족사랑 프로젝트'는 미래 우리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신생아 용품을 제작하고 나누는 체험활동을 통해 생명 존중 및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됐습니

다. 청소년들에게 가족사랑,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하고, 바느질을 통한 재능기부로 지역 내 취약 가정 신생아에게 나눔 문화를 실천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경기도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주최하는 경기도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 학생들은 바느질이 익숙하지 않지만 배넷저고리, 속싸개 등 신생아 용품을 제작하며 가족사랑, 생명존중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봉사의 참 뜻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하남신장고등학교를 시작으로 하남중학교 등 지역 내 중·고등학교와 연계해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재능기부를 실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여를 신청한 학교 관계자 또한 "처음 시작했을 때 아이들의 반응이 무척 좋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나 여기 비뿤어졌어" "손재주가 없어 쉽지가 않네" 얼핏 보면 가정수업처럼 보이지만 하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작년부터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생명의 기쁨! 경기도 가족사랑 프로젝트'의 모습입니다. 여기 저기에서 한 땀 한 땀 신생아용품을 만드느라 여념이 없는 신장고 1학년 학생들은 마음처럼 손이 움직이지 않는지 연방 고개를 가웃거리곤 합니다. 그러던 중 "난 벌써 곰돌이 완성이다!" "와~ 귀엽다. 제법인걸?" 등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완성된 아기 용품을 자랑하는 학생들의 얼굴에는 뿌듯함과 자신감이 한가득. 사실 처음 아기 용품을 만드려고 했을 때는 귀찮은 마음이 들었지만, 막상 참여해보니 친구들보다 더 잘 만들기 위해 엄청 노력했다며 마음을 털어놓는 학생들. 보다 자세한 그들의 소감을 듣기 위해 미니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하**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니... 또 참가하고 싶어요!"  
- 신장고등학교 1학년 진주현 학생

### Q. 처음 'HAPPY DONATE'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바느질을 원래 못하다 보니 처음에는 힘들기도 했는데, 아기가 입을 거라는 생각에 '힘들다고 투정부리지 말고 열심히 해서 보람을 느껴보자' 싶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만들기 시작했죠. 제가 만들고 있는 건 턱반이인데 이제 완성 단계거든요. 무척 뿌듯해요. 빨리 완성해서 아기에게 전하고 싶어요.

### Q. 교육을 들으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요?

평소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교육을 통해 구체적으로 가족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고, '가족들이 나를 많이 생각하며 아끼고 있겠다' 싶어 소중함을 느꼈어

요. 평소 저는 가족에게 잘 표현하지 않는 편이고 대신 누나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생각해보는 기회도 됐어요. 한 마디로 가족에 대한 제 모습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죠.

### Q. 특별히 기억나는 일이 있으세요?

바느질을 오랜만에 해서인지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았는데, 하다 보니 방법을 터득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재미가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짝꿍에게 바느질하는 방법을 알려 주기도 했어요. 제가 바느질을 중학교 때 수행평가 때문에 처음 했었는데 그때는 강압적이었다면, 신생아 용품은 안 해도 되는 거지만 아이들에게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자발적으로 한 거라 더욱 좋았어요. 그 기분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 Q. 재능기부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실 재능기부라는 걸 처음 해봤어요. 기부라는 것이 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보람차며 뿌듯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참여하고 싶어요. 그때는 모자를 만들어줄 거예요.

글\_ 이보민 · 하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 **사회공헌** ●

**쿠팡, 어니스트 컴퍼니 친환경 기저귀 기부**

7월 16일 쿠팡(대표 김범석)이 친환경 유아용품기업 미국 '어니스트 컴퍼니'와 손잡고 1,800만 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우리회에 전달했다. 친환경 '어니스트 패스기저귀'는 위탁가정 아동,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아동, 재가 미혼모 아동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메르스로 취소된 직원 행사 비용 후원**

KB기업은행 검사부는 6월 22일 우리회를 방문해 '아동들을 위한 식료품'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메르스로 취소된 직원 문화행사 비용을 더욱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자는 직원들의 제안으로 결정됐으며, 후원물품은 위탁가정 아동에게 전달되었다.

**그리스도의교회 협의회**

**미혼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MOU 체결**



우리회와 그리스도의교회 협의회(회장 신수봉 목사)는 6월 11일 사회공헌 협약식을 가졌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미혼한부모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는 데 뜻을 같이해나갈 것이다.

**(주)HSA에드 사회공헌 협약 체결**



LG 계열 광고회사 (주)HSA에드(대표이사 김종립)와 5월 21일 사회공헌협약을 체결했다. (주)HSA

드는 '캥거루스토어 A' 디자인 및 라디오 시나리오 등 공익 지향 광고활동의 자문으로 우리회 복지활동에 참여했으며, 앞으로 더욱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 **본부** ●

**제9회 아름다운청소년 시상식 개최**



우리회는 8월 6일 '제9회 아름다운 청소년 선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선발된 10명의 아름다운 청소년에게 각각 상장과 200만 원의 꿈 지원금을 수여했으며 전 수상자인 김수민(영지대학교 1학년) 군이 참석해 비보이 공연을 선보이는 등 다양한 무대를 연출했다.

**김대열 회장, '2015 대한민국 신창조인 대상' 사회복지 부문 수상**



7월 1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우리회 김대열 회장이 '2015 대한민국 신창조인 대상' 사회복지 부문에서 수상했다. 이날 행사는 사단법인 국민성공시대가 주최한 제3회 대한민국 신창조인대상 시상식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 신창조인을 선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자리였다.

**디어패밀리박스 거리 홍보**

우리회 서포터즈인 '흙씨' 서포터즈는 6월 24일과 6월 27일~28일 흥대와 합정 메세나폴리스에서 디어패밀리박스 거리 캠페인을 열었다. 흥비, 흥시 캐릭터와 함께 사진도 찍고 찍은 사

진을 SNS에 올리는 등 많은 시민들과 아이들의 참여로 즐거운 나눔의 자리가 되었다.

**2015 하반기 국외입양인과 가족들의 모국 방문 이어져**



국외입양인과 입양인 가족들이 모국문화를 배우고 체험하기 위해, 6월 22일 모자이크 방문단(총11명)의 방문을 시작으로 총 200여 명이 우리회를 방문했다. 국외입양인들은 자신의 입양가기 전 기록이 담겨 있는 파일을 열람했고 위탁모, 친부모와 상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34기 장학생 서포터즈 워크샵 실시**



우리회 장학생 서포터즈가 5월 16일~17일, 1박 2일간 춘천으로 워크샵을 다녀왔다. 춘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 센터 내 물청소 및 화단 잡초 제거 등 환경정비 봉사활동을 진행했으며, 앞으로 장학생 서포터즈로서의 활동 계획을 논의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 **지방사무소** ●

**강원사무소, 돌맞이 아름다운 후원**

7월 12일 강원사무소를 통해 입양된 권지연(가명) 가족이 돌잔치를 맞이한 기념으로 후원금을 전달했다. 아이의 한 번뿐인 돌잔치지만 그 비용이 더욱 의미 있는 곳에 사용되길 바라는 마음에 후원했으며, 후원금은 위탁아동들의 의료

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경기사무소, 캥거루 스토어 소소한 바자회 열어**



경기사무소에서 7월 17일 '캥거루 스토어 소소한 바자회'가 열렸다. 지역 주민들에게 캥거루 스토어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생필품과 아동의류 등 다양한 품목을 판매했으며, 판매된 수익금은 싱글맘 지원 사업비로 사용된다.

**대구사무소, 예비 양부모 교육 실시**

대구사무소는 7월 17일 예비 입양가족을 모시고 양부모 교육을 실시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코칭 교육, 양육 교육, 국내입양 사례발표 등의 교육을 받으며 행복한 가정을 위한 부모의 역할에 대해 배웠다.

**인천사무소, 홀트인천복지센터 개관 기념예배**



아동복지 통합모델로 세워진 홀트인천복지센터의 개관 기념예배가 7월 20일 열렸다. 남문현 목사의 말씀선교 및 김대열 회장의 기도로 경건하게 진행되었으며, 앞으로 홀트인천복지센터가 지역사회 내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다짐의 시간이 되었다.

**충청사무소, 아이사랑공간 현판식**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에 위치한 롯데리아 버드네점(대표 한화자)은 7월 14일 입양대상 아동들과 미혼모들을 위한 아이사랑 공간 현판식을 진행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했다.

● **홀트일산복지타운** ●

**찾아가는 음악회 '동행, 그 아름다운 만남' 개최**



홀트장애인합창단 '영혼의 소리로'가 8월 4~6일까지 찾아가는 음악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문화예술활동에 관심이 깊은 방승문화진흥회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으며, 대구파티마병원 및 대구소년원을 찾아 아름다운 노래를 선사했다.

**버다 홀트 할머니 15주기 추모예배**

7월 31일, 홀트교회에서 버다 홀트 할머니의 15주기 추모예배가 열렸다. 할머니의 생애와 삶을 비디오로 시청하며 할머니를 추억하는 시간을 가졌다.

● **홀트학교** ●

**홀트학교, 교내 IT 페스티벌 개최**



홀트학교는 7월 15일 교내 e-스포츠 대회인 'IT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 대회는 장애학생들의 정보화 능력을 신장시켜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e-스포츠 종목의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여가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 **종합사회복지관** ●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진행**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6월 27일 '나눔 행복 SBS봉사동아리' 지원으로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했다. 봉사동아리 회원 13명은 주거의 비닐하우스를 정리하고 벽지, 장판, 전기를 교체했으며, 방승국 소품으로 쓰던 중고 가구까지 후원했다.

**제11회 홀트청소년 자원봉사국토대장정 실시**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7월 22일~23일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 내 청소년 35명을 대상으로 제11회 홀트청소년 자원봉사국토대장정을 실시했다. 24km 도보횡단 및 공동체프로그램,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인내심과 배려심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탈학교 예방프로그램 스쿨락**

**'진로 체험학습' 실시**



운봉종합사회복지관은 반송여자중학교와 연계해 탈학교 예방프로그램 스쿨락 '진로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참여 학생들은 총 6회에 걸쳐 애견 미용, 캔들 공예, 바리스타 체험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 큰나무교실지역아동센터 여름캠프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부설기관인 큰나무교실 지역아동센터는 8월 6일~7일 1박 2일 야외캠핑을 실시했다. 이번 캠프에서는 '나를 업그레이드하는 시간, 성장캠프'라는 주제로 레크리에이션, 롤링페이퍼 등 나를 돌아보고 공동체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 살림꾼의 노하우 특강



7월 10일,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살림꾼의 노하우 'EM-유용미생물(효모, 유산균 등 80여 종의 유용한 미생물을 모아 배양한 것)' 특강을 열었다. EM을 활용한 환경 살리기와 생활 적용법에 대해 배우고 청소, 세탁, 악취 제거 등 다양한 활용법에 대해 숙지했다.

### 개관 1주년 기념 제2회 본누리 나눔 마당 개최



달서구 본리종합사회복지관이 7월 28일 개관 1주년을 맞이해 '제2회 본누리 나눔 마당'을 개최했다. 다양한 체험활동과 가족 미션으로 어린이

부터 어르신들까지 세대 공감 행사가 이뤄졌으며 지역주민들에게 뜻깊은 추억을 선사했다.

###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 아름뜰, 입소자 힐링 날들이

아름뜰 입소자들은 6월 26일~27일 오랫동안 희망찬 바다로 힐링 날들이를 다녀왔다. 탁 트인 바다 풍경과 파도를 보면서 육아 및 일상생활의 피로감을 해소했으며, 이번 여행을 통해 입소자들은 향후 자립계획 수립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 미혼모자 위해 '아침粥 새 출발'



공동생활가정으로 전환된 아침粥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입주파티 및 입소아동의 백일잔치가 7월 3일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이경란 문화1동장, 한화케미칼 단체봉사자 등 유관기관 관계자 30명이 참석해 아침粥의 새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 대구클로버, 입소아동 백일잔치



대구클로버는 7월 21일, 달구벌 후원회의 후원으로 입소아동 백일잔치를 진행했다. 아동의 백일잔치를 위해 달구벌 후원회원들은 음식부터 케이크까지 모든 재료들을 손수 준비해주셨으며, 입소아동은 더욱 특별한 백일잔치를 선물로 받게 되었다.

### 대전클로버, 입소자 원예치료



대전 클로버에서는 6월 중 매주 화요일마다 엄마들을 대상으로 원예치료를 진행했다.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 및 부정적 감정을 완화시키며 클로버 내에서의 가족생활 안정, 자립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마포구건강가정지원센터,

#### 연(聯)애(愛)하는 부부 실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6월 4일부터 8월 6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총 10회에 걸쳐 갈등을 겪는 부부를 대상으로 '연(聯)애(愛)하는 부부'를 진행했다. 부부의 사랑을 다시 잇는다는 의미를 가진 '연애하는 부부'는 소시오 드라마, 경청하기 교육을 통해 부부가 자신과 배우자를 이해해 관계 회복을 이끌어내고 있다.

#### 여름방학지원사업 '신나joy 즐겁joy'



하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신나joy 즐겁joy' 프로그램을 8월 10일부터 22일까지 실시했다. 요리 프로그램, 창의교실 등 참여 초등학생들의 관심을 끌 만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아이들의 또래 관계나 사회적 증진을 목적으로 의미 있는 방향을 선사했다.

### '통(通)! 통(通)! 뚝! 패밀리' 여름캠프 실시



수성구건강가정지원센터는 7월 11일 '통(通)! 통(通)! 뚝! 패밀리' 및 모두가족 품앗이 참여 가정을 대상으로 여름맞이 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민속놀이 및 악기 체험 등 부모, 자녀가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서로의 친밀감을 높이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교육 진행



마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7월과 8월 중에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교육'을 진행했다. 희망하는 마포구 내 어린이집을 결혼이민자 강사가 방문해 베트남, 중국 등 자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다양한 문화체험 및 이해 교육의 시간을 마련했다.

#### 2015 하반기 한국어교실 개강식 진행

수성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8월 5일 '2015 하반기 한국어교실 개강식'을 진행했다. 센터 한국어 강사님들과 하반기 한국어교실 참여 결혼이민자들이 함께한 이번 개강식에서는 센터사업 소개와 한국어교실 운영 전반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 다문화가족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바이오산업진흥원과의 업무협약식



춘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7월 22일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원장 이시우)과의 업무협약식이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다문화 자녀교육 및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매년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바이오캠프에 다문화 자녀가 참여하게 된다.

### ● 전주영아원 ●

#### 신기한 비누방울 놀이



7월 28일 파티 & 별문 코리아에서 전주영아원 아동들을 위해 비누방울 놀이를 후원해주셨고, 영아원 마당 이곳저곳에 풍선으로 꾸며졌다. 영아원 아동들은 '훅~ 훅~' 불어 크고 작은 비누방울 모양을 하늘 높이 날리고 환호하며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 ● 어린이집 ●

#### 태극기 쿠키 만들기 체험



마포어린이집은 8월 7일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태극기 쿠키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 아이들은

요리사처럼 변신해 태극기를 관찰하며 다양한 재료와 도구를 사용해 적극적으로 비슷한 모양의 쿠키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 중동어린이집, 어린이안전교육관 견학

중동어린이집 어린이들은 7월 17일 어린이안전교육관을 방문해 지진 및 소방안전교육을 받았다. 직접 몸으로 다양한 체험을 경험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시간이 되었다.

#### 하남은방울어린이집, 경기도 소방동요대회 참가



하남은방울어린이집 어린이들은 5월 29일 경기도 소방 동요대회에 참가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연습한 노래와 율동을 선보여 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으며, 소방페스티벌의 다양한 활동에도 동참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 전국후원회 ●

#### 강원후원회, 'Dear Family Box' 참여



강원후원회는 7월 15일 디어패밀리박스를 구매해 인형 제작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에게 큰 희망이 되길 바라며 한 뭉 한 뭉 구름빵 인형을 제작했으며, 앞으로도 강원후원회원들의 나눔 캠페인은 지속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 아름뜰 · 고운뜰 · 아침뜰 시설 유형 변경

우리의 아름답 · 고운뜰 · 아침뜰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7월 1일부터  
공동생활지원형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로  
변경되었습니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은 2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한부모를 대상으로 2년간 숙식 보호, 양육 지원, 직업교육 지원 등 자립에 중점을 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홀트아동복지회 복지사업의 중심은 “아동 행복”입니다

### ● 후원사업 소개

#### 위탁아동양육 후원

친부모가 키울 수 없어 홀트의 보호 아래 자라는 위탁아기들의 분유, 기저귀 등 생필품 지원과 교육비, 의료비, 재활 치료비로 사용됩니다.

#### 한부모가족 후원

도움이 필요한 미혼부모를 위해 상담과 출산 지원, 양육비 및 아동물품 지원, 의료와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저소득가정 아동 후원

저소득가정 및 장애인가정,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꿈과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비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복지 후원

생활 지원과 의료 지원이 필요한 장애아동과 장애인을 위해 복지시설과 특수 학교를 운영해 체계적 치료와 자활훈련을 돕고 있습니다.

#### 장학 후원

1982년부터 시작한 '홀트장학금'과 저소득가정 및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꿈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해외아동결연 및 사업 후원

캄보디아, 몽골 빈민가정 아동을 위한 교육과 급식 지원, 보건 서비스 및 의료 지원을 펼쳐 해외 빈곤국에 희망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 정기후원 1899-0923
- 후원문의 02-331-7074
- ARS 060-700-1006
- 홈페이지 www.holt.or.kr
- 후원계좌 479037-01-000461(국민)  
홀트아동복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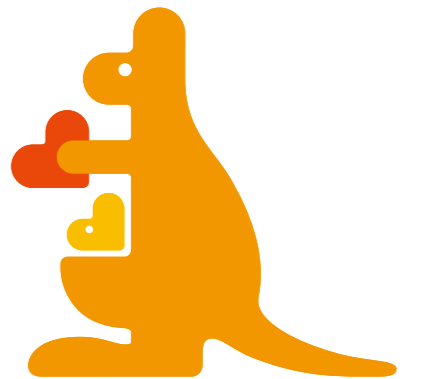


## 차라리 사 달라고 조르고 떼를 썼으면...

엄마가 돈이 없어서 슬퍼한다는 걸 알아 버렸어요

싱글맘이 워킹맘이 되는 곳 \_ 캥거루 스토어

# KANGAROO STORE



지금, 홀로 아이를 키우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는 싱글맘들에게 힘을 더해주세요 ☎1899-0923



창조는 발견이다. 고객의 마음에서 찾는.  
그것이 다름을 만드는 Discovery다.

